

원희룡 장관, “건설현장 불법근절 위한 원도급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”

- 19일 오후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 CEO 간담회 개최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(일)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.
-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,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,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하는 한편,
 - 준비 중인 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- 원 장관은 현장에 “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하도급사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”이라며,
 - “불법 행위로 피해 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”와 다를 바 없다며, “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”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”이라면서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.
 - 특히 “다단계 하도급,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”며,
 -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, “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와,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자”고 제안하였다.

- 원 장관은 “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.”며, “노·사를 가리지 않고, 그간의 관행을 면밀히 살펴, 불법적인 부분은 바로잡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2023. 2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